

01 교회소식

정명호 목사 초청 남수단 손수건 집회

가난과 질병으로 시름하는 아프리카 남수단공화국에서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성결 복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했다.

02 생명의 말씀

의와 인과 신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의 활력을 통해 옳은 것을 좇는 의(義), 사랑과 덕을 의미하는 인(仁), 하나님께 대한 믿음 즉 신(信)을 이루기 원하신다.

03 기획특집

주님 마음 닮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영의 사람에 가까이 이르렀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 이유 세 가지 착각, 육체의 결여, 교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04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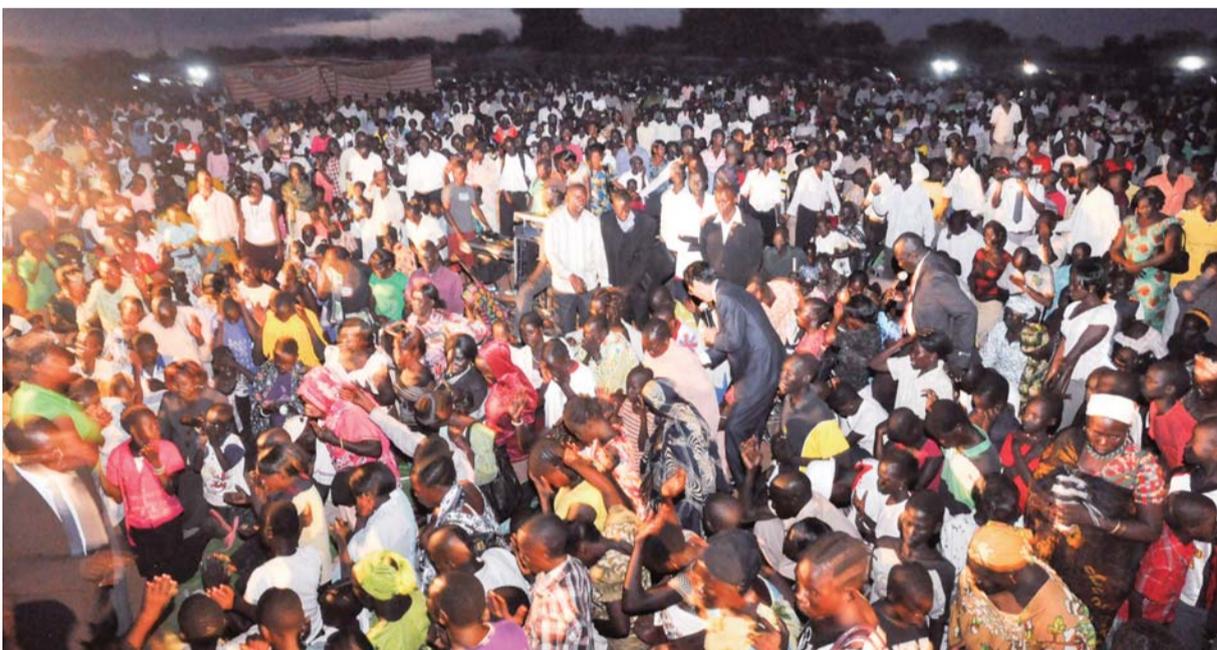
영육 간에 치유하시는 주님

40년간 고통받던 대인공포증을 치료받고 기쁘게 살아가는 일본 오사카 만민교회 미요시 오오코 성도와 권능의 무안단물을 마시고 요로결석이 치료된 전인식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07호 2011년 11월 1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아프리카 남수단을 밝힌 성령의 불같은 역사!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를 강사로 열린 아프리카 남수단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에서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를 통해 남수단이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축복의 땅이 되기를 기도한다.

베트남어 『십자가의 도』, 『나의 삶 나의 신앙』 현지 출간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1』과 설교집 『십자가의 도』가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출판됐다. 베트남 호치민 만민교회 담임 데이빗 남 목사는 “베트남에서 기독교 신앙서적이 공식 허가를 받아 출판되다니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대전·포항 지교회 창립 기념예배

지난 11월 6일 대전만민교회(담임 길태식 목사)는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를 가졌다. 2부 대예배 시 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성도 4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저녁예배 시에는 감사 이희선 목사(전국 남녀선교회 총지도교사)가 ‘주 안에서 한 가족(골 3:12-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2명의 장로장립과 7명의 시무권사 취임 및 3명의 명예권사 추대가 이뤄져 기쁨을 더했다.

같은 날 포항만민교회(담임 고영대 목사)에서는 이미경 목사(1대대교구장)를 강사로 창립 1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 목사는 ‘생명을 다해(마 22:37)’라는 제목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 전했다. 전날 열린 손수건 집회에서는 많은 성도가 치료돼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렸다.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3만 명 운집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나라인 수단 은 아랍계가 지배하는 북수단과 위주민이 사는 남수단 간에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50년간 내전 끝에 2011년 7월 남수단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했지만 현실은 매우 비참하다. 인구의 90%가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등 심각한 가난과 오랜 내전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북부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은 자유를 얻은 대신 집은 물론 당장 먹을 음식도 없어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은 황열과 말라리아 등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수단 국회 다니엘 에웨트 아코트 대변인의 요청으로 수도 주바에서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28일, 정 목사는 남수단 국회의사당 세미나 홀에서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역에 대해 증거한 뒤, 남수단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었다. 같은 날 주바 크리스천 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육기강해’를 강의했다. 이를 통해 많은 만민 자협력 교회가 가임됐다. 10월 29일과 30일에는 연인원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손수건 집회가 열렸

다. 정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행 4:12, 눅 5:1-9)고 설교했다. 이어진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통해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병어리가 말하는 등 간증이 속출했다. 목발과 휠체어를 들고 단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로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으며 장내는 축제 분위기가 됐다. 이 집회를 통해 남수단 국민들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평안과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한편 다니엘 국회 대변인은 “남수단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성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며 감사패를 보냈다.

공부 잘하는 비결

이재록 목사 자기주도 학습법

어려움을 경이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복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箴10

공부 잘하는 비결
How to Study Well

이재록 목사 자기주도 학습법

우림
urimbooks.com